

직무발명으로 기업성장과 인재확보를 동시에!

- 지식재산처·이노비즈협회,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논의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와 함께 5.26.(화) 14시 30분,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노비즈(INNOBIZ)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이번 간담회는 이노비즈 기업이 중소기업을 벗어나 중견·대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직무발명제도* 등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기업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과 10개 이노비즈 기업이 참석한다.

* 직무발명제도 : 종업원(연구자)의 직무상 발명을 사용자(기업 등)가 승계함에 따라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기업 내 사내 직무발명규정 등으로 운영)

<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026년 5월 26일(화) 14:30~15:20 /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 (참석기업) (주)3D오토메이션, 가온그룹(주), (주)노타, (주)니어스랩, (주)대흥정보, (주)빅태블릿, (주)월드케미칼, (주)이엠엘, (주)지니테크, 투테크(주) (10개 기업, 가나다 순)
- (주요내용) 직무발명제도, 국내외 핵심 지식재산 확보, 특허분쟁 및 위조상품 대응, 지식재산 금융 등 지식재산 전략

이노비즈 기업은 평균 17.4건 이상의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로 ①중소기업 총 수출액의 26.2%(302억달러), ②코스닥상장기업의 58.6%(1,051개사), ③글로벌강소기업 1000+*의 60%(283개사)를 차지하는 등 중견기업으로 가는 성장사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출처: 이노비즈협회, 2025년 기준)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 지원 사업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직무발명과 지식재산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기업 현장의 어려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지식재산처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사업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 이후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산업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등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2026」 학술회의가 개최되며, 직무발명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도 이어진다.

* 포상기업 : (지식재산처표창) (주)노타 /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가온그룹(주) / (이노비즈협회장표창) (주)니어스랩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보호되고, 특허가 이노비즈 기업의 성장과 국제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선순환 구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식재산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노비즈 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식재산 제도 개선과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불임: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간담회 홍보자료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

담당부서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덕원 (042-481-5168)
		담당자	사무관	김용혁 (042-481-5920)
	(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원지원정책본부		주무관	박 연 (042-481-5309)
		책임자	본부장	이환희 (031-628-9625)
		담당자	대 리	김정임 (031-628-9692)

직무발명과 기업성장 혁신 전략 2026 기업 간담회

2026년 5월 26일(화)

과학기술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

주최  지식재산처 INNOBIZ
이노비즈협회 주관  한국발명진흥회